역사·미술·교류… 아시아 불교 연구 지평 넓히다

동남아·中·日 불교 관련 연구 학술서 잇달아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불교의 역사와 문화, 미술을 알 수 있는 학술 연구서들이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대부분이 '처음'이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 연구서 발간의 의미가 크다.



불교평론 발간 '동남아불교사'

동남아 불교 다룬 첫 전문연구서
전문가 6인 참여…각국 상황 다뤄

불교계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동남아불교사〉를 발간했다. 동남아불교는 초기 불교 교단의 모습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세계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한국불교계에서 동남아시아 불교 연구는 백지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동남아불교에 관한 단행본은 외국 학자들의 번역본 몇 권에 불과하다. 동남아불교의 역사나 교리 사상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관심이 아직은 대승불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불교 속에서 동남아불교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빠알리 삼장을 문자로 기록해 유지·전승하고 있어서다. 스리랑카의 빠알리 삼장과 주석서들은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에 전해져 지금의 상좌부불교 국가들은 자국 문자로 기록된 빠알리 성전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불교는 의례는 물론 승려의 수행방식과 신도들의 신앙 형태도 유사점이 많다.

〈불교평론〉에서는 동남아불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자 지난해 동남아불교 특집을 진행했고, 독자들에게 별쇄 요청을 받는 등 높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동남아불교사〉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동남아불교 첫 연구 개론서라고 할 수 있자.

책에는 전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론과 스리랑카불교는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이 맡았으며, 미얀마불교는 조준호(고려대 문과대학 연구교수), 태국불교는 김홍구(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캄보디아와 라오스불교는 송위지(성원불교대학장)가 맡아 기술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를 포함하는 믈라유 문화권의 불교는 양승윤(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이 베트남불교는 이병욱(고려대 철학과 강사)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번 〈동남아불교사〉에 대해 불교평론은 "동남아불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도 "이 책을 통해 상좌부불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 한국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연기 원효회 의상회'

원효·의상 행적 그린 日국보 그림
'화엄연기' 숱 도판 처음 소개돼

신라의 고승인 원효(617~686)·의상(625~702) 스님은 신라를 넘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며 그들을 흠모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일본 고잔지(高山寺) 승려 묘에(明惠, 1173~1232)도 그런 사람도 중 하나였다. 그는 승려화가 조닌(成忍)으로 하여금 원효와 의상의 전기를 다룬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 이하 화엄연기)'이라는 두루마기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조닌의 그림에 묘에는 원효와 의상의 추앙하는 글을 썼다.

본래 '화엄연기'는 원효회 2권과 의상회 4권이었지만, 전국시대 병란으로 그림이 파손되고 뒤섞였다가 에도시대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각각 3권으로 정리됐다. 지금은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최근 민속원이 펴낸 〈화엄연기 원효회 의상회〉는 일본 국보인 '화엄연기'에 대한 해제와 도판, 번역문을 수록한 첫 연구·번역서이다. 한국에는 일부 도판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천연색 도판으로 전부 수록한 적은 없었다.

번역은 화엄연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던 김임중 일본 메이지대 겸임교수와 허경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원효 탄생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그림의 저작권을 알아보고 번역과 해설 작업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원효와 의상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재호의 '중국불상의 세계'

中불상·석굴 조명한 종합적 개설서
불상 교류 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

25년 간 중국불상 연구에 매진해 온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내놓은 〈중국불상의 세계〉는 중국불상 전래부터 전개와 대중화까지 전반을 살펴보게 하는 개론서다.

지난 2005년 〈중국의 불상〉이란 개론서를 발간한 바 있는 배 교수는 이번 〈중국불상의 세계〉에서는 원·명·청나라 시기 불상과 최신 미술 이론들을 추가로 보강했다. 또한 중국불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불상을 비교·참고자료로 함께 수록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인도에서 불상이 전래된 이후 후한·삼국·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점차 중국화됐으며, 수·당 시대에 맞춰 대중화를 이뤘으며 원나라 시대부터 청대까지는 티베트화가 이뤄졌다고 시대를 구분한다. 책 역시 이 같은 시대 구분으로 전개된다.

"벽암 각성 조형활동, 일정 규칙 있었다"

문명대 교수, 미술사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부휴계 사찰은 총괄, 다른 곳은 증명 참여



임진왜란 직후 조선 사찰의 불사를 가장 많이 주도했던 벽암 각성의 활동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조선후반기 최고 불교미술 조성자 벽암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벽암 각성의 불상 조형이 시대별로 3단계로 나뉘며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조명했다.

20건의 불상 조형을 분석한 문 교수는 벽암 각성 활동 단계를 △시주와 지도, 증명했던 37~51세의 1단계(1612~1626) △총괄·지도를 주로 했던 61~66세의 2단계(1636~1641) △총괄·지도·증명을 했던 73~82세의 3단계(1648~1657)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조형 활동 초기인 1단계에는 수조각승으로 현진, 2단계에는 청헌, 3단계에서는 무염이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자신의 문중인 부휴 선수계 사찰의 불사에는 총괄 지도 위주로 관여하고 있으며, 거리가 있는 사찰에는 증명·지도로만 참여하는 등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벽암 각성 선사는 불상 조형에 있어 3단계로 나뉘어 불사에 참여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특히 3단계인 10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불상 조성의 총괄·지도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화엄사 벽암 각성비문을 통해 본 벽암각성의 생애와 사상',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의 '벽암각성의 건축활동과 화엄사 중창'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韓·中학자, 화엄조사 법장 스님 집중 조명

동국대 HK연구단, 중국 인민대 등
23~24일 공동 학술대회 및 특강

중국 화엄종 제3조인 현수 법장 스님의 사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과 중국 중앙민족대·인민대는 3월 23일~24일 양일동안 동국대 다향관과 불교학술원 강의실서 제2회 공동학술대회 및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와 특강은 3개 대학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특강은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매년 교차로 시행된다. 학술대회는 한국에서는 중국불교 인물을, 중국에서는 한국불교 인물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협의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중국인민대에서 원효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중국 스님 가운데 법장 스님을 주제로 동국대에서 열렸다.

23일에는 먼저 〈대승기신론〉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리우청요우(劉成有) 중앙민족대 교수가 '풍우란의 기신론관'을 주제로, 장카이(張凱) 닝포대학 교수가 '기신론 삼대소의 7식설'을 주제로 강연했다.

24일에는 7명의 연구자가 법장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발표한다. 오전에는 장쉐송(張雪松) 인민대 교수가 '법장의 〈화엄삼매관〉을 주제'로 본서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하면서 변형하는 과정을 살폈으며, 양샤오핑(陽小評) 인민대 연구자는 '법장의 〈화엄경탐현기〉에 나타나는 법계관'을 발표했다.

또한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동국대 HK연구단의 특별초청으로 참가하는 일본 동대사 화엄학연구소의 나카니시 토시히데(中西俊英) 연구원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를 중심으로 법장의 실천사상과 화엄교리간의 관련성을 밝혔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법장과 종밀의 〈기신론소〉의 상위가 주로 〈원효소〉에 기인됐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균여가 법장의 사상을 수용하고 응용하는 양상을 교판론과 법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요나라 선연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현 스님은 선연스님이 징관의 〈화엄경소〉를 주석하면서도 법장의 교판론을 중시했음을 화엄 사상을 근거해 밝혔다.

한편, 한·중학자들이 한데 모여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내년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한국 불교인물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밝은사람들硏, '아인슈타인과 불교' 주제 강좌

4~6월 대전 올연선원서… 매주 수요일·총 12강

불교와 과학의 소통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전 올연선원에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총 12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김성구 불교과학아카데미 대표(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며, 3월 말 출간 예정인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가 교재로 사용된다. 참가비는 30만 원이다.

주요 강좌로는 △중도와 윤회 △불교사상과 용어의 시대적 변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 △마음과 삶 △복잡성의 과학 △양자역학:공과 중도의 물리학 △실재성의 문제와 관찰자의 의식 △명상의 시대 등이 진행된다.

밝은사람들연구소는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과학아카데미와 협력해 '불교와 과학의 소통을 통한 실상/진리 탐구 강좌'를 진행한다"면서 "불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042)822-5648

신성민 기자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